

#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사전 컨설팅

### 도교육청, 신규 지정·운영학교 대상 진행...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등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꽃심호텔에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신규 지정·운영 학교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컨설팅은 컨설턴트와 단위학교 간 밀착 컨설팅을 통해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신규 준비학교의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준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학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우수 사례 특강을 통해 고교학점제 신규 지정학교인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고교학점제 준비 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사전 컨설팅에는 2023학년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군산상일고등학교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신규 지정학교 27개교 교장 또는 교감, 업무 담당자가 참석, 소규모 일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례 발표와 7개의 분임별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1년 동안 실시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각 프로그램을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의 필수 운영 과제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에 맞도록 재구조화해 내실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계획·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은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처음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계획 수립과 소규모학교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었다"면서 "27개 신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주를 방문한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일행이 호주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 복수학위에 합의했다. 사진은 스윈번대학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호주 주요 대학과 대학원 복수학위 합의

### 전북대, 시드니공대·스윈번대학·RMIT 등과 시행키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등 3개 대학과 대학원 복수학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등 호주 주요 대학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16일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을 찾아 대학원 복수학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이완 아트 데외협력부총장을 만나 연구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 대학 간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 스윈번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학 카렌 헵콧 연구부총장 및 교수들과 회의를 갖고, 그간 시행

해 온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연장키로 합의했다.

전북대는 이 대학과 지난 2017년부터 재료공학 분야에서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특히 이 박사과정 공동학위는 올해 1월 29일자로 만료됐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연장됐다. 학문 분야도 재료공학에서 고분자 의생명공학 나노기술, 수소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주 RMIT에서도 박사과정 공동학위가 추진된다. 김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 대학 피터 폴로에 데외협력부총장을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대학간 박사과정 공

동학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대학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최고 대학들과 공동학위제 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며 "외국의 우수 대학들과 더 많은 학문 분야에서 교류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면 전북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에 안문석 국제협력처장과 유동진 BK21 사업단장, 김중서 단장 등이 함께해 BK21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연구분야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운영 협력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관내 대학인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원광보건대학교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이어 20일에 원광보건대학교와 진행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교육문화회관의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정립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형대 관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간 간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교육문화회관은 2023년에 '청소년 미래 꿈잡기' 프로그램을 특색사업으로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 국립군산대, 교육부장관상... 우수사례 발표 진행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교육부 실시 2022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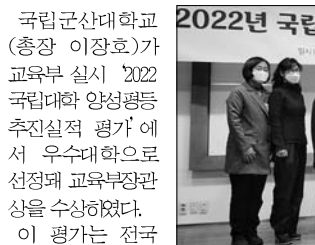
이 평가는 전국 3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신입교수의 성별 다양성 제고 노력, 전임 교수의 성별 다양성,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구현 노력을 비교한 것이며, 국립군산대학교는 전임교원 500인 미만인 일반대학 II그룹 가운데 1위로 평가돼, 서울대, 춘천교과와 함께 올해의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군산대학교는 특히 신입교수의 성별 다양성,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구현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일 우수대학 표창과 함께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군산대학교 이호근 교무처장은 차별에서 구별로

를 타이틀로 제시하며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이호근 교무처장은 군산대학교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차별 철폐를 넘어서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구별을 통한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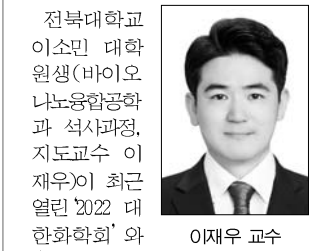
성과 심포지엄을 주최한 교육부 김경연 정책기획관은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 대학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 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와 대학 혁신에 발맞추어 대학 내 양성평등 기반 조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2022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

## 실프 피브로인 활용 복합박막 표면 개질시 불균일 행형성 스케일링 방지 효과

### 전북대 이소민 대학원생, 수처리 분야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학술 발표 논문상 수상받아



이재우 교수



이소민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이소민 대학원생(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이재우)이 최근 열린 '2022 대한화학회'와 '2022 한국막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수처리 분야 우수 연구 성과로 각각 우수 포스터상과 학술 발표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소민 학생은 해수 담수화 및 반도체 산업용 초순수 생산에 활용되는 폴리이미이드계 복합박막의 표면을 수산화기가 풍부한 친환경 천연 소재인 '실크 피브로인'을 활용해 개질할 경우, 다가 이온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일 핵형성(heterogeneous nucleation)과 그로 인한 스케일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성과를 인정 받았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을 복합박막 표면에 코팅할 경우 세척 주기 4배 가까이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분리막 세척에 수반되는 운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량 비교가 어려웠던 농도 분극 모듈러스를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이론적으로 도출해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수처리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에도 출판됐다. /정은성 기자

## 2023학년도 전북지역 후기고 신입생 모집

### 평준화일반고 39·비평준화일반고 54곳 대상

전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6~28일 3일간 전북지역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평준화일반고(39개교) 1만78명, 비평준화일반고(54개교) 3,759명이다. 평준화지역별 모집인원은 전주(23개교) 6,244명, 군산(8개교) 1,944명, 익산(8개교) 1,890명이다.

이에 앞서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분류된 삼산고는 12~14일, 전북외국어고는 19~21일 각각 원서접수를 실시했다. 합격자 발표는 삼산고·전북외국어고는 30일에, 평준화일반고(39개교)·비평준화일반고(54개교)는 2023년 1월 6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평

준화일반고 학교 배정을 위한 공개추첨을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

학생의 성적과 거주지는 반영되지 않으며, 지원한 학교 지망 순서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한다.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정원)보다 많은 경우 지망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 배정지점과 간격을 적용해 추첨한다.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정원 배정한다.

평준화일반고의 배정학교 발표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행 포털(<http://snp.jec.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체육특기자와 지체장애인 및 지체장애 1차, 2차 장애인 등 장애인 배정에 앞서 선배정의 우선권을 갖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은 지난 20일 교내 행복기숙사 드림홀에서 2022년 LINC 3.0 성과확산 및 산학연관 포럼을 개최했다.

## 전주비전대 LINC 3.0 성과확산·산학연관 포럼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지난 20일 교내 행복기숙사 드림홀에서 2022년 LINC 3.0 성과확산 및 산학연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NC 3.0 사업 참여 10개 트랙(8개 학과) 참여 교원과 (주)에프엠에스를 비롯한 참여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LINC 3.0 사업단과 참여 산업체, 가족회사,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

과 발표, 17개 우수 산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 및 4차산업 관련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정삼모 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가 교육부 발표 취업률 통계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내는 것은 오늘 포럼과 같은 산학협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협약 산업체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